

가자 전북으로... 농촌유학 만족도 높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전북농촌유학 프로그램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농촌유학생 27명 중 93%인 25명이 연장을 신청했고, 올해는 신청자가 84명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이 3월부터 도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안 조립초 15명, 정읍 이평초 12명, 임실 지사초 10명 등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체류형 37

올해 신청자 84명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
조립초 아토피 치유·이평초 동학혁명 연계 등
지역 학교별 특색 살린 프로그램으로 '각광'

가구 68명, 유학센터형 18명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75명, 그 외 경기·인천 등에서 9명이 전북 농촌학교로 전학을 왔다.

특히 농촌유학 대상 지역은 지난해 순창·완주·임실·진안 등 4개 시군에서 올해 고창·김제·장수·

정읍 등이 추가돼 8개 시군으로 늘었다. 더불어 협력학교도 6개교에서 18개교로 3배 확대됐다.

한편 전북농촌유학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립초는 진안고원 치유숲과 연

계한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이평초는 동학농민혁명과 연계한 마을교육과정, 지사초는 치즈페마파크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 지역의 특색을 살려 운영하고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유학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킬 것"이라며 "전북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관심학교 홍보 설명회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서울·경기 도관 설명회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학생자치기구 출범

군산대학교는 30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제39대 군산대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출발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호 총장을 대신해 임기욱 학생처장,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신상대책위원회, 7개 계열의 학생회, 학부·학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임원,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임기욱 학생처장은 축사를 통해 "다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실을 하나씩 마주하고 있다"며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활기차고 보람있는 대학 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대 39대 '한빛' 총학생회 이도경(소프트웨어학부 4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환한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빛'의 이름으로 대학 생활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인 만큼 학우들의 시작을 비추주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대는 출범식 행사와 연계해 총학생회 주관으로 4월 5일, 8일 양일간 교내 일원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4월 봄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30일 5층 회의실에서 '제7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

도교육청, 제7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촉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0일 5층 회의실에서 '제7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도의회 교육위원, 교원단체 교원 등을 포함해 총 13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평화통일기반 조성과 국민 화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평화와 공존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통해 평화·공존 교육이 세계사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중이다.

또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원과 평화통일 관련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활용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민주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으로, 평화적으

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교육공동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민주평화통일의 필요성 인식을 위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은성 기자

도내 초·중·고교생 안전교육, 체험 위주로

도교육청,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확충사업 공모 선정

앞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산악, 캠프, 압사,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의 안전교육을 체험 위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종합형 학생안전 체험관 확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부로부터 올해 총 7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은 연면적 4,512㎡(지상 3층)의 규모로 남원 운봉에 위치한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부지 내에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도내 학생안전체험관은 전라북

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해양안전체험관과 고창 삼인안전체험관, 그리고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임실 119안전체험관이 전부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종합형 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준비해 왔다.

한편 종합형 안전체험관이 완공되면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된 다양한 안전체험교육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종합형 안전체험관에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요령 등을 배우게 된다"면서 "전문인력이 있는 학생수련원에서 수련활동과 안전교육을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체험교육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규 영양교사 학교급식 업무 지원

도교육청, 실무중심 직무연수 실시·멘토링 제도도 운영

현장 주도성 교육급식 운영 위해 찾아가는 종합컨설팅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신규 영양교사들을 위한 학교급식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이는 학교급식 운영과 영양교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실무중심의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양교사로 첫발을 내딛는 신규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운영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무중심 직무연수를 2회 진행한다.

식단작성 및 식재료 품의 등 급식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나이스 직무연수를 지원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선배 영양교사들이 문제해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위생관리 HACCP System에 대한 연수를 지원한다.

또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학교급식

컨설팅단 배대식 및 멘토·멘티 결연식을 갖고, 선배 교사들이 신규 영양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멘토 교사들은 멘티 학교를 직접 방문해 1학기 동안 1:1 멘토링을 4회 실시한다.

특히 현장 주도성 교육급식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컨설팅은 오는 6월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컨설팅단은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학계 및 현장전문가(수석교사, 선배 영양교사, 교육지원청 급식담당)로 구성해 교육급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서기 문예체전강과장은 "지나해부터 실시한 학교급식 컨설팅과 멘토링 제로 신규 영양교사 배치학교의 학교급식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컨설팅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급식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조경학과 초화류 심기 자원봉사

우석대학교 조경학과는 식목 철을 맞아 (사)따뜻한한주 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와 함께 봉사를 봉사고 일원에서 초화류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전공과 연계된 봉사에는 조경학과 교수와 학생 50여 명이 참여해 만경강 물레길과 강변 산책로 인근에 초화류 20,000그루를 심었다.

봉사에 참여한 이종화(조경학과 1년) 학생은 "그동안 학과에서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정환 학과장은 "이날 심은 초화류의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오래도록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과는 전공을 기반으로 한 재능 나눔과 특화된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남원캠퍼스 들어선다 | 전북대, 남원시 등과 공동 협력

미래수송기기 분야 연구개발 기반 마련·인재양성 나서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협약 기관들과 협력키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남원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 정지관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30일 남원시청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최경식 남원시장, 전경기 남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RIS 사업 선정으로 전북대가 중점 추진하는 미래수송기기 분야(UAM, 드론, 항공 등)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

마련과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나선다.

또한 농생명 기반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및 푸드테크,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스마트농업 관련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대는 대학의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발굴을 위해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를 설립키로 하고, 협약 기관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JBNU 지역연구원' 설립과 연구원 내에 14개 시·군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연구소를 만들어 지역맞춤형

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지역소멸 방지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양오봉 총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대학이 주도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을 포괄하고 있는 전북대의 지역과의 상생 전략이 남원에서 첫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 등 각 기관은 추후 전담조직 마련과 인력배치를 통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사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북대가 지자체와 정지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많은 바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원장실에서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학교 국제교류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대학간 국제교류원, 학술인력 교류 '맞손'

전주대-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원장 제혜금)은 원장실에서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학교(San Diego State University, SDSU) 국제교류원(원장 Brian Blake)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육·연구를 위한 학술인력 교류 △단계 교환학생 및 연구 협력 △COIL(Collaborative Online International Learning) 등 가상 프로그램 개발 협력 △과학 및 기술 분야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이다.

샌디에이고주립대학교 국제교류원장

Brian Blake은 "첫 한국 방문을 전주대학교와의 MOU 체결로 시작해 기쁘다"며 "향후 호텔경영학과 등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두 대학의 학생, 교수,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혜금 원장은 "이번 샌디에이고주립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양 대학 간 협력은 물론 학생과 교수 등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